

# ‘安-朴 단일화’ 요동치는 정치권

## 박 변호사 보선서 승리엔 총선·대선판도까지 지각변동 예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박원순 단일화’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일 출마를 포기하고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지지 선언함에 따라 박 변호사가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단일화 효과의 향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안 원장 지지자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안철수 돌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박 변호사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또 이날 야권의 다른 유력한 후보

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한 한나라당과의 1대1 구도 구축에 합의하면서 보선 정국이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변호사가 ‘안철수 바람’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양강 구도인 기존 정치 질서의 재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까지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선 안 원장이 내년 총선을 전후로 중도층 및 시민 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안철수 돌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박 변호사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로 일단 정치권에서 발을 뺀 듯 보이지만 폭 넓은 지지세를 확인하면서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타파할 대안으로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안 원장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하고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로 분업화된 ‘제3세력론’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당장 정당과 같은 형태를 띠진 않겠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박 변호사 간 야권 통합후보 논의,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 통합합상 등에서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정치세력화가 제3당 창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창당은 자금과 조

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총선 국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탈세력이 합류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기존의 대선구도마저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으로 짜인 대선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 등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대선정국이 조기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총선 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지지율 박원순으로 옮겨갈까

## 진보 지지층 확장 의 민주당과 2차 단일화면 지지율 급상승 전망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합의’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보여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박 상임이사 쪽으로 넘어갈지가 보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3일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 지지율은 39.5%로 2위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13.0%)의 3배나 됐다. 반면 박 상임이사 지지율은 3.0%에 불과했다. 또 GH코리아의 3일 조사에서 안 원장은 36.7%로 2위인 나 최고위원(17.3%)을 배 이 상 앞섰고, 리얼미터의 4일 조사에서도 안 원장이 37.4%로 공동 2위인 나 최고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각각 14.2%)를 크게 앞섰다. 박 상임이사

는 2.1%였다.

하지만, 단일화 이후 박 변호사가 낮은 인지도를 극복, 한 자릿대에 불과한 지지율을 두 자릿대로 단숨에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이 유력하다.

정치대 정치학과 신용 교수는 “박 변호사는 진보적이어서 지지층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 원장과 합침으로써 외연이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 원장 지지층이 얼마나

박 변호사 쪽으로 이동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권자들이 박 변호사를 잘 몰랐지만 며칠 새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며 “안 교수 지지층의 60~70%가 박 상임이사에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향후 선거 과정에서 안 원장이 박 변호사를 얼마나 적극 지원하고 민주당 등과의 2차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지지율 상승의 관건이 될 것이라 지적이다. 때문에, 한 변호사는 진보적이어서 지지층을 ‘대항당’ 찾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범야권 통합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지지’ 이끌어낸 박원순은 누구

# 투옥·검사 경력 시민운동하는 인권변호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양보를 이끌어 낸 박원순(55) 변호사는 국내 시민단체 운동의 선구자이다.

1995년~2002년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며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 권리찾기’ 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개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소탈한 외모지만 대쪽같은 성품의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이른바 ‘김급조지 9호세대’로 1975년 서울대 법대 1학년 재학시절 유신체제에 항거해 할복한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제적된 뒤 단국대 사학과로 적을 옮

겼다. 80년 사시 22회에 합격, 대구지검 검사로 1년여 근무하다 옷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변신했다. 권인숙 상고문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말지(誌) 보도지침 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국민연금 노령수당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생활 최저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02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를 맡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안 원장이 ‘마음 속 응원자’라며 애정을 나타냈고, 결국 후보직을 양보할 만큼 깊은 친분을 키운 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사회공헌 활동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주요 약력**  
출생 1956.3.26(경남 창원)  
학력 · 1974년 경기고졸업 · 1975년 서울대 법대 입학 · 1983년 단국대 사학과 졸업 · 1992년 영국 런던. LSE 디플로마 취득  
주요경력 1982년 대구지검 검사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1989~1991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993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객원연구원 1993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199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대표 1995~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1998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2000년 2000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지도위원 2002년 법무법인 신해 고문변호사 2002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2003~2004년 KBS 이사 2003~2006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4년 (주)포스코 사외이사 2004년 서울신문 사외이사 2006년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2007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07년 법무부 검찰인권법률지원회 위원장

### ‘박원순-안철수’ 단일화 이어 ‘박원순-한명숙’ 합의 도출

# 민주 ‘범야권 단일후보론’ 탄력

‘박원순-안철수 단일화’에 이어 ‘박원순-한명숙’의 야권단일후보 선출 합의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범야권 단일후보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함께 안철수 원장과 후보단일화를 이뤄낸 박 상임이사를 만나 “범시민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박 상임이사 등은 이날 오후 이같이 합의한 뒤 “우리 3인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주 ‘복지’ 평화를 되찾는 중차대한 전 환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범시민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4개 합의사

합을 발표했다. 박 상임이사와 안 원장의 극적인 단일화에 이어 한 전 총리, 문 이사장과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형은 한나라당 후보와 범야권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권 통합과 서울시장 후보단일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두 논의의 단일화는 반(反) 한나라당 단일대오를 형성해 야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물꼬를 튼 청신호”라고 말했다.

박상순 전략홍보본부장도 “야권이 한나라당에 서울시장은 내줄 수 없다”며 “집권세력이 더 이상 확장돼선 안 된다”는 뜻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집권세력이 더 이상 확장돼선 안 된다”는 안 원장의 뜻은 야권이 모두 힘을 모으라는 국민의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 도당위원장 임명 보류

한나라당은 경선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된 신임 김문일 전남 도당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6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경선에 나섰던 상대 후보측이 김 위원장의 금품제공 의혹을 제기해 전남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임 김 위원장의 임명이 보류됐다.

한나라당은 금품제공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거친 후 오는 8일 김 위원장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과 경선에서 맞섰던 천성복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김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은 대의원이 도당 선관위에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기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체준) 010-5311-0086

대한민국 최초! 음성채팅의 신기원

**무료 음성커뮤니티**

어디서나 24시간 100% 직접 통화됩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진실입니다!  
고통만 비하면 900 정보이용료나 고가의 월정액에 비해 낮은 사용료로 100% 음성채팅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0 원! 환불금비 0 원!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추가비용이 단 1 원도 없이 그냥 일반전화입니다.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남·여 공통사용

매너만남방 10번 | 여행정보방 12번 | 음성소셜방 07번  
보급보급방 01번 | 연인만남방 03번 | 1:1 대화방 15번

14년 전통 하트폰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 요금제  
여성우려 **080-331-7958**

365일 24시간 비내려도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94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 택배 무료배송